



탄산지석으로 '안전' 지킨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원전폭발 사고에 이어 중국의 텐진항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사건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부문에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어



이진주 기자
한국전기신문사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당시 물류창고에 40여종의 화학물질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중국 공안부는 질산화암모늄 800t, 질산칼륨 500t, 시안화나트륨 700t 등 폭발성 화학물질이 2,000t 가량 있었고, 이들 물질 이외에도 위험 화학물 3,000t 정도가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화학물질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 불안에 떨던 중국 국민들은 죽은 물고기 떼가 떠오르고, 독극물이 섞인 빗물이 바닥에 흐르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멘붕'에 빠진 상태다.

이같은 불안은 중국뿐 아니라 밀접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전염돼, 어느새 '독극물비가 내린다'는 등 '특정 날짜에는 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유언비어들이 퍼지기도 했다. 수많은 안전사고와 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고든지 사후 처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는 비단 필자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었나 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폭발 사고로 인한 2차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이다. 단순히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폭발사고 이후 중국 당국은 위험 화학물 처리에 전력을 기울였다. 흙과 모래, 자갈 등으로 해당지역을 두르고 수시로 보수작업을 하며 오염물 누출을 막았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는 약 700t의 맹독성 물질 시안화나트륨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 사고지점을 원점으로 현장을 반경 1km, 2km, 3km로 3등분해 핵심구 이외 지역에서 화학품 처리를 했고, 화생방 전문요원들이 맹독성 물질을 찾아수거하는 동시에 오염된 토양에 대해 과산화수소 등으로 중화처리를 했다. 중국 텐진 폭발사고의 경우 '비'가 최대 난관이었다. 유출된 시안화나트륨이 물과 만나 생성되는 시안화수소가 대기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텐진 폭발사고 이후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각종 중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대책을 점검하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 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역시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아찔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바로 그것.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화학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소방 등 부처 합동으로 구미, 시흥, 익산, 서산, 울산, 여수 등 6개 권역 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의 원전폭발 사고에 이어 중국의 텐진항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사건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부문에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건사고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국민 모두는 '안전(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